

『朝鮮實錄』의 2019년 國寶 追加指定에 대하여

On the Designation of the Additional Volumes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s National Treasures

裴賢淑 (Pae, Hyon-Suk)*

◁ 목 차 ▷

- | | |
|------------------------|--------------------------|
| 1. 緒言 | 6. 2019년 『朝鮮實錄』의 國寶 追加指定 |
| 2. 『朝鮮實錄』의 意義 | 7. 『朝鮮實錄』의 修補 |
| 3. 大韓帝國期の 『朝鮮實錄』 管理 | 8. 結言 |
| 4. 光復 後の 『朝鮮實錄』 管理 | <참고문헌> |
| 5. 1972년 『朝鮮實錄』의 國寶 指定 | |

< 초 록 >

『朝鮮實錄』은 국정을 행하면서 참고하기 위해 편찬한 사서가 아니고, 후세에 영구히 전승시키기 위해 편찬한 역사 서적이다. 실록은 국왕도 열람할 수 없었고, 오로지 국왕의 허가를 받은 사관만이 사고를 열람할 수 있었다. 그것은 군주조차 실록과 사초를 열람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인데, 이 점에서 실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실록은 전란을 통해서도 혼신을 다해 소개시켰으므로, 유일본이 전래될 수 있었다. 전후 안정기에 들자 유일본만 장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생각하여 복본을 제작하여 분장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제작한 실록의 내용은 지금까지 온전하게 전래되고 있다.

이 실록은 6·25전쟁 기간에도 부산으로 소개시켜 위험에서 구출했었다. 전쟁의 참상이 어느 정도 복구되자 1973년 12월 31일 국보 제151호로 지정하였다. 1997년 10월 1일에는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시켰다. 그런데 2016년 12월 20일 연합뉴스는 박상현 기자의 보도로 『朝鮮實錄』 중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책이 60여 책이라 보도하였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실록지정조사단을 구성하여 모두 9회에 걸쳐 조사한 후, 2019년 6월 26일 추가로 지정해 국보에 편입시켰다. 따라서 정족산본 1,187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75책, 적상산본 4책, 봉모당본 6책, 낙질과 산엽본 99책, 도합 2,219책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9차의 조사를 거쳐 국보로 추가 지정된 사정, 권수, 책 수, 현재 상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浸濕으로 劣化된 실록의 복원을 위한 최근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실록이지만 아직 적상산본에 대해서는 전모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프랑스에 있는 『백운화상 초록불조지심체요절』도 한국과 프랑스 공동으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킨 바 있다. 같은 맥락으로 평양의 적상산본도 전수를 조사해서 세계기록유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록의 전모를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손만대에 전승시켜야 할 것이다.

要語: 조선실록, 국보, 정족산본, 태백산본, 오대산본, 적상산본, 봉모당본, 낙질본, 산엽본

* 계명문화대학교 명예교수(hspae1977@empas.com)

투고일: 2020년 2월 18일 최초심사일: 2020년 3월 2일 게재확정일: 2020년 3월 8일
서지학연구, 제81집, 5-31,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1.5>

<ABSTRACT>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re historical documents not compiled for daily reference to state affairs, but for subsequent generations to utilize as reference forever. Even the Kings could not access *The Annals* ; only the officers who had been authorized by the King could read them. Because of this rule that even the king could not read *The Annals* and the manuscripts, the truth and credibility of *The Annals* are recognized.

The Annals were evacuated by all means throughout the Japanese invasion, so at least one copy could be preserved. After the Japanese invasion it was regarded that keeping only one copy would not be safe, so *The Annals* were republished, so that five sets of copies were kept intact until the end of Joseon Dynasty in the early 20th century. However, the country lost her sovereignty to Japan in 1910, and the veritable records of the Joseon Dynasty were once again put into a great peril.

The Korean Civil War in 1950 again put this preservation effort into danger. *The Annals* were evacuated to Busan in 1950 during the Korean War. After the war, when Korea recovered from the ruins of the war, *The Annals* were designated as the 151st National Treasure of Korea in 1973. And in 1997 it was listed i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ry.

On December 20, 2016, The Yonhap News Agency reported that 60 books of *The Annals* were omitted from the National Treasure of Korea. An investigation team, formed by the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investigated this 9 times and added these omitted books to the National Treasure in 2019. Therefore, all together 2,219 books were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s, which include 1,187 books of Jeongjok Mountain, 75 books of Odae Mountain, 4 books of Jeoksang Mountain, 6 books of Bongmodang, 99 books of odd volumes and unaligned leaves.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circumstances of how the omitted *The Annals* were added as National Treasures after 9 investigations, the number of the volumes and books, and their current state. In addition I also looked at the latest measures to restore the degraded booklets, which have deteriorated due to the leak of rainwater.

Although *The Annals* were listed as UNESCO's Memory of the World, the whole affair of *The Annals* stored at Jeoksang Mountain is still unknown. *Jigji* in France was also listed as a World Record Heritage jointly with Korea and France. In the same vein, it seems necessary that *The second edition* of the books of Jeoksang Mountain kept in Pyongyang should be examined in full and be included in the UNESCO World Record Heritage. We need to understand the state of *The Annals* in full detail, preserve them and pass them on to the future generations.

Key words: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National treasure, books of Jeongjok Mountain, books of Taebaek Mountain, books of Odae Mountain, books of Jeongsang Mountain, books of Bongmodang, books of odd volumes, unaligned leaves

1. 緒言

『朝鮮實錄』은 『承政院日記』·『日省錄』·『備邊司謄錄』·『儀軌』 등과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 인 국가기록물이다. 그러나 『朝鮮實錄』은 여타 국가기록물과는 위상이 다르다고 하겠다. 실록은 그 위상에 있어 가장 위의 단계에 위치하며, 국정을 참고하기 위해 편찬한 사서가 아니다. 또한 사료에 있어 일차와 이차 자료를 토대로 편찬한 삼차자료이다. 편찬목적에 있어서 후세에 영구히 전승시키기 위해 편찬했다는 점에서 여타 사서와 다르다. 또한 당대에 편찬한 사서가 아니라 한 국왕의 사후에 임시기관을 설치하고 편찬했으며, 완성된 후는 사고에 장치하고 국왕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사관만이 사고를 개폐하고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매우 특별하게 관리한 사서였다.

다른 사서들은 전란이나 변란을 통해서 소개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실되어 전승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록만은 전란기간에도 한 부만은 혼신을 다해 소개시켰으므로, 명맥은 끊어지지 않았다. 전후 안정기에 들자 유일본만 장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생각하여 복본을 제작하여 분장하였다. 현재 유일본인 구 전주 사고본을 계승한 정족산본, 중간본인 태백산본 완질, 오대산본·적상산본·춘추관본의 잔본, 落帙과 散葉本이 전래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제작한 실록의 내용은 지금까지 온전하게 전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실록은 6·25전쟁 기간에도 부산으로 소개시켜 위험에서 구출했었다. 전쟁의 참상이 어느 정도 복구될 즈음 1972년에 실록을 국보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2016년 12월 20일 연합뉴스는 박상현 기자의 보도로 『朝鮮實錄』 중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책이 60여 책이라 보도하였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실록지정조사단을 구성하여 모두 9회에 걸쳐 조사한 후, 2019년 6월 26일 추가로 지정해 국보에 편입시켰다. 이에 9차의 조사를 거쳐 국보로 추가 지정된 사정, 권수, 책수, 현재 상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침습으로 열화된 실록의 복원을 위한 최근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 『朝鮮實錄』의 意義

『朝鮮實錄』은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사적을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이며, 조선의 서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 서적이면서 방대한 사서이다. 『朝鮮實錄』은 조선의 역사 연구에 필수불가결의 자료이다. 조선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산업, 제도, 군사, 법률, 교통, 통신, 문화, 종교 등 각 방면에 관한 사료는 물론 중국, 일본, 여진 등 인접한 지역과의 교섭 자료까지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 외적의 침입에도 실록은 일실되지 않았으며, 20세기에 들어 일제의 침략과 6·25전쟁을 거치면서도 망실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는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은 완질이 전래되고, 오대산본·춘추관본·적상산본·북한산

본·봉모당본은 잔본이나마 전존된 것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료로서의 위계에 있어 1차 자료에 해당하는 공문서 원본은 각급관청에서 실제 시행한 업무의 기록으로 대개 복본을 제작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문서 원본이 전래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 하겠다. 여러 관청에서 생산한 공문서는 양적으로 많으므로 일정 기간까지는 보존하지만, 영속적으로 보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문서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발췌 또는 축약된 상태로 2차 자료 또는 3차 자료에 반영된다.

『承政院日記』나 『日省錄』은 국정 참고용으로 상설 관청에서 당대에 편찬한 역사 서적이거나, 『承政院日記』는 편년체로 편찬해서 승정원에만 보존한 유일본이란 점과 『日省錄』은 강목체로 편찬한 일종의 정무일지로 규장각에만 소장한 유일본이란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각종 『儀軌』와 『謄錄』도 역시 국정 참고용으로 당대에 항목별로 편찬한 사료이다. 『謄錄』은 상설관청에서 편찬하였고, 복본을 제작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며, 『儀軌』는 儀軌廳이라는 임시기관에서 조선 초기에는 3부 제작하다가 말기에는 10여부 제작해 사고를 위시해 당해관청에 소장한 점에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朝鮮實錄』은 공문서 원본은 물론 『承政院日記』·『日省錄』·『儀軌』·『謄錄』을 위시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사가의 문집까지 참고하여 편찬하였다. 『朝鮮實錄』은 임시관청인 실록청에서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해 비장할 목적으로, 당해 국왕의 사후에 편년체로 편찬해, 대개 4-5부를 제작해 사고에 비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록은 만일의 재난에 대비해 복본을 전국 각지의 안전한 곳에 비장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래 될 수 있었다. 이 『朝鮮實錄』에는 몇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로 역사기술에 있어 매우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은 역사기록이라는 점이다. 사초 작성에서 편찬까지 사관은 독립적으로 활동하였고, 또 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사관은 사실을 직서해야 했으며, 또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논평도 쓸 수 있었다. 비밀이 누설되어 사화가 발생된 적이 있긴 했지만, 조선만큼 군주조차 실록과 사초를 열람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실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로 『朝鮮實錄』은 최대 5부 간행하면서도 금속활자로 간행했으므로, 우리나라 인쇄문화에 대한 인식·전통·높은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역사 서적이란 점이다. 조선은 세계적으로 금속활자를 가장 앞서 실용한 고려시대의 전통을 이었고, 그 활자개량에 힘쓴 전통이 실록에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실록을 자손만대에 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전란 중에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다. 곧 사고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문제이다. 사고는 보존도서관으로서 고려시대로부터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며, 거점 지역에 분산 건립해 전승에 만전을 기한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이 있는 『朝鮮實錄』에는 조선시대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이 망라되어 있으며, 한 왕조의 역사적 기록으로 가장 장구한 세월을 걸친 기록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기록유산이다. 이에 『朝鮮實錄』은 일찍이 1973년 12월 31일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되었다.

이와 같이 중요성이 있는 『朝鮮實錄』에 관해서 실록편찬을 담당한 기관, 직제, 관원의 자질, 편찬 방법, 改修, 사고의 설치, 임진왜란 직후의 소개, 重刊, 사고의 재설치 등을 중심으로 주로 사학적인 견지에서 고구된 바 있다. 또한 실록 편찬시의 임시관청으로 實錄廳, 正書謄錄廳, 粉版謄錄廳, 別工作廳, 實錄儀軌廳의 설치와 그 관원의 선임, 준행해야 할 규정과 임무 등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 있다. 실록제작에 있어 간사여부, 각 사고에 봉안된 실록의 성격, 사고를 관리하고 수직한 제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각 실록 자체에 대하여도 제침, 표지, 문양, 침안, 판식, 지질, 간사여부, 염랍, 책장수, 상태에 대한 서지적인 분석도 행해진 바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춘추관과 사고제도가 붕괴된 이후 『朝鮮實錄』의 관리에 대해 살펴보면서 누락된 실록의 조사와 아울러 국보에 편입시킨 사정을 살펴본다.

3. 大韓帝國期の 『朝鮮實錄』 管理

조선초부터 건양 원년(1896)까지 실록의 관리에 지방 군수는 결코 참여할 수 없었고, 춘추관에서 관장하면서 반드시 왕명을 받은 사관을 파견해서 관리하였다. 조선은 갑오경장(1894)으로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급속도로 변화하게 된다. 이때 奎章閣은 즉각 宮內府에 예속되었다. 이어 춘추관의 사고와 그 장서도 대한제국 건양 2년(1897) 7월 15일부터 議政府에서 관할하게 되었다.¹⁾ 弘文館의 장서는 융희 원년(1907) 奎章閣에 병합된다.

사고업무를 관장하게 된 의정부는 광무 2년(1898)부터 秘書院郎 또는 秘書監郎 등의 관원을 강화·양주·강릉·봉화·무주군의 사고에 파견하여, 당해 사고지의 군수와 협동으로 포쇄하게 하였다.²⁾ 조선시대에는 군수는 결코 사고의 개폐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일이었다. 궁내부는 융희 2년(1908) 9월 23일 규장각의 기구를 개편하여 典謨課, 圖書課, 記錄課, 文事課의 4과를 두어 각각 업무를 분장시켰다. 규장각의 장서는 도서과에서 관리하였고, 사고 관련 업무는 기록과에서 담당하였다.³⁾ 융희 2년(1908) 강화와 정족산사고의 장서 약 5,000책을 경복궁 慶成殿으로 운반하여 정리하였고, 다른 사고의 장서는 경비 부족으로 현지에 둔 채 관리하였다.⁴⁾

당시 궁내부 기록과에서 사각과 그 장서를 관리하면서 외사고의 장서를 철저히 조사하였다. 오대산사고는 융희 3년(1909) 10월 25일에 궁내부 사무관 村上龍倍과 평창군수 李愚暉이 합동으로

1) 官報. 第689號. 建陽 2年 7月 15日. 彙報.

2) 官報. 第846號. 光武 2年 1月 14日. 勅令2號.

3) 宮內府大臣官房調査課, 宮內府規例. [1910] 48-50. 奎章閣分課規程.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三. 寫本. [1912-1922] 奎章閣沿革資料. 宮內府官制(抄) 奎章閣分課規程.

4) 朝鮮總督府取調局, 圖書關係書類綴. 寫本. 第1號. (明治 44).

조사하였다.⁵⁾ 적상산사고도 융희 4년(1910) 4월 14일에 역시 村上龍佑과 무주군수 朴台榮이 조사하였다.⁶⁾ 태백산사고는 융희 4년 4월 29일에 내각서기관 李源鎔과 봉화군수 柳哲熙가 점검하였다.⁷⁾ 사고를 점검한 村上龍佑은 융희 3년(1909) 12월 종전 형지안의 기록에는 부정확한 점이 있어 전면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려면 시일과 경비가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사고에 수장된 실록을 경중으로 옮겨야 한다고 건의하였다.⁸⁾ 이후 점차 3사고본도 경중으로 운반되거나, 동경으로 이관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일합병 이전인데 일본인이 주도한 것을 보아, 이미 침략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융희 3년(1909)에 궁내부는 각 사고에 수장되어 있던 실록 및 서책과 다른 기관에서 편입된 장서와 함께 규장각의 장서를 관리할 기관으로 帝室圖書을 설치하였다. 즉 일본 통감부가 규장각을 제실도서로 개편한 것이다. 동 11월 9일부터 이의 관리와 열람을 위하여 <帝室圖書保存規程>과 <帝室圖書貸出規程>을 제정하였다.⁹⁾ 한편 서목도 편찬하였는데, 동년 11월에 간행한 『帝室圖書目錄(궁내부 규장각도서과편)』에는 실록은 한 부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아직 외사고의 장서를 현지에 둔 채 관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융희 4년(1910) 8월 29일 한일합병이 되자 왕실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李王職을 황실령으로 제정하였다.¹⁰⁾ 이로써 제실도서는 혁파되고 李王職 圖書課로 개편된다. 따라서 1910년 8월 29일부터 1911년 6월까지의 10개월간은 규장각도서와 사고 장서를 이왕직 도서과에서 관리하였다. 이 사이 1911년 2월 일제는 이왕직도서를 조선총독부에 이관시킬 것을 결정하였고, 1911년 3월 30일 총독부 취조국에서 강제로 접수하였다. 이로써 오대산사고와 태백산 사고의 장서는 政務總監이 取調局長에게 인계하고 조선총독부에서 관할하게 되었다.¹¹⁾ 그러나 경비 부족으로 현지에 둔 채 관리해오다가, 오대산 사고본은 1913년 11월에 동경제국대학으로 보관 전환되었다. 이는 일본학습원대학 교수 白鳥庫吉가 寺內正毅 總督에게 교섭한 까닭인데, 오대산 사고본은 관동대지진(1923년)의 결과 燒殘本 일부만 수습할 수 있었다.

끝이어 1918년과 1919년 사이에 정족산 사각은 철거되었고,¹²⁾ 적상산 사각은 稻葉君山이 답사한 1926년에도 보존되어 있었다.¹³⁾ 중수된 지 15년밖에 경과되지 않은 태백산 사각도 1914년까지 보존되었던 것으로 보이나,¹⁴⁾ 언제 철거되었는가에 대한 자료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대산

5) 隆熙三年十月二十五日五臺山實錄曝曬時形止案. 寫本. [隆熙 3] 卷末.
6) 隆熙四年四月茂州郡赤裳山城史閣調查形止案. 寫本. [隆熙 4] 卷末.
7) 慶尙北道奉化郡太白山城實錄閣曝曬整理形止案. 寫本. [隆熙 4] 卷末.
8) 宮內府, 五臺山史庫調查報告書. 隆熙 3. 張8.
9) 宮內府大臣官房調查課, 帝室圖書保存規程, 帝室圖書貸出規程. [1910] 192-208.
10)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官報. 第106號. (明治 44年 1月 9日) 皇室令 34號.
11) 朝鮮總督府取調局, 圖書關係書類綴. 第1號, 第4號. (朝乙發 2.861號) 第5號 (朝發135號)
12) 李在郁, “李朝實錄の成立に就て,” 『文獻報國』 v.3 no.12(昭和 12. 12), 21.
13) 稻葉君山, “赤裳史庫訪問記,” 『朝鮮史學』 第7號(大正 15. 7), 21-23.
14)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二. 寫本. (1912-1922) 圖書目錄解題 中 李朝實錄に就て.

사각은 1950년 6·25전쟁 발발까지도 건재했으나 1·4후퇴때 아군이 작전상 불태웠다는 증언이 있어 태백산 사각과 오대산 사각은 1·4후퇴때 아군이 작전상 불태웠을 가능성이 있다.

1911년 3월 조선총독부에서 사고 장서를 접수하였는데, 이왕직에서는 도서와 기록류를 합쳐 도합 5,519책은 인계하지 않았다. 이왕직에서는 인계하지 않은 奉謨堂本과 赤裳山 史庫本은 별치하여 1911년 6월 19일 藏書閣을 설치하였다.¹⁵⁾ 이후 이왕직에 수장된 자료를 대상으로 1924년과 1935년에 각각 『李王家藏書閣古圖書目錄』을 편찬하였다.¹⁶⁾ 이 두 목록에는 옛 적상산 사고본 실록이 수록되어 있다. 장서각에 별치한 서적은 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되어 현재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가 되었다. 이왕직 장서각 서적을 제외한 규장각 도서와 사고 장서를 관리하고 있던 조선총독부는 1928-1930년 3차에 걸쳐 이들 장서를 京城帝國大學 圖書館으로 다시 이관시켰다.

1912년 4월 1일 조선총독부의 관제개혁으로 取調局이 폐지되고 參事官이 설치되었다. 참사관에서는 분실을 두고 구 취조국의 장서를 이관시켜서 관리하였다. 실록을 참사관에서 관장하고 있을 때인 1913년 10월¹⁷⁾ 오대산본 실록이 동경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 787책 이관되었다. 당시 寺內正毅 조선총독에게 실록이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재삼 교섭하여 허락을 받아낸 인물은 白鳥庫吉이었다.¹⁸⁾ 白鳥庫吉이 약탈해 동경제국대학에 진장되어 있던 오대산본 실록은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되고, 연구실에 대출되었던 실록만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소잔본 중 27책은 1932년 5월에 반환되어 경성제국대학에 보관 전환되었다.¹⁹⁾

총독부 참사관에서 실록 및 규장각 장서를 관장하던 시기에는 이들을 정리하여 여러 종류의 서목을 편성하였다. 이 서목을 통해서도 실록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다. 즉 『太白山藏書目錄原稿』, 『太白山史庫圖書目錄』, 『奉化太白山史庫藏書目錄』, 『五臺山藏書目錄原稿』, 『五臺山史庫圖書目錄』, 『平昌郡五臺山史庫藏書目錄』 등이다. 이 중 『太白山史庫圖書目錄』과 『五臺山史庫圖書目錄』은 경사자집으로 분류하여 수록한 것이며, 여타는 50音順으로 배열된 것이다.²⁰⁾ 이 중 『太白山史庫圖書目錄』 표지에는 [朝鮮總督府參事官室]이란 청색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특히 『五臺山藏書目錄原稿』에는 실록이 50音別로 분산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동경제국대학에 보관 전환시킨 1913년 이전에 편찬된 목록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대산의 다른 두 목록에는 실록이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1913년 이후에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15년 규장각도서의 정리가 일단락되자, 참사관분실에서는 규장각의 서책을 망라하여 서목을

今西龍, “李朝の實錄に就て,” 『藝文』 第5卷8號(大正 3. 8), 12.

15) 朝鮮總督府取調局, 圖書關係書類綴. 寫本. (明治 44).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昭和 13), 25.

16) 『李王家藏書閣古圖書目錄』(京城: 李王職, 大正 13), 7-8.

『李王家藏書閣古圖書目錄』(京城: 李王職, 昭和 10), 10-11.

17)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昭和 13), 26.

18) “李朝實錄について,” 『史學雜誌』 第25編2號(大正 3. 2), 251.

19) 서울大學校圖書館, 圖書受入原簿; 135001-14000. 寫本. (1932. 3-9), 64-65.

20)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概要』(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昭和 13), 26.

편성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의 서고 제1고-제6고까지의 서책목록인데, 이중 제3고의 목록은 결본이다. 이 목록이 곧 烏絲欄의 조선총독부 패지에 1921년에 필사한 『朝鮮圖書臺帳』 8책이다. 이 목록에는 서고별로 도서번호·서명·책 수·판종·부문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8책에 2질의 실록과 낙질본이 수록되어 있다.²¹⁾

당시 적상산 사고본은 이왕직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오대산본은 동경제대에 이관된 다음이기 때문에 실록 2질은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이며, 낙질본은 정족산 사고에 수장되어 있던 춘추관 사고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²⁾ 한편 동년에 연활자로 인쇄된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에도 史部 編年類에 역시 實錄 2秩과 落秩本이 수록되어 있다. 이 서목에는 열성조의 실록명 아래에 등록번호가 부기되어 있는데, 12719-12746, 12760-12787의 2질과 12747-12759의 낙질본이 수록되어 있다. 낙질본에는 ‘缺’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朝鮮圖書臺帳』의 낙질본과 일치된다.

이 목록이 편찬된 후 1922년 11월 총독부의 관계개혁으로 이들 장서는 참서관 분실에서 學務局으로 이관되었다. 학무국 시대인 1923년 京城帝國大學이 설립되었다. 1930년 동승동에 경성제국대학교 도서관이 준공되자 학술연구를 위해서는 총독부가 보유하고 있는 구 규장각도서를 대학에서 수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전후 3차에 걸쳐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시켰다. 제1차는 1928년 10월 29일에 2,074종 9,551책, 제2차는 1930년 10월 28일에 1,086종 15,970책, 제3차는 1930년 10월 29일에 13,471종 136,638책을 이관시켰다.²³⁾ 학무국에서 보관 전환시킨 『引繼圖書目錄』에는 실록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반면, 경성제대에서 편찬한 『奎章閣特別圖書目錄』에는 실록이 수록되어 있다. 더구나 1932년 5월에 반환된 오대산의 잔본 실록도 『奎章閣特別圖書目錄』에 수록²⁴⁾된 것으로 미루어 1932년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서목들을 편찬했는데 『奎章閣朝鮮本圖書目錄』 10책, 『奎章閣貴重圖書關係書類』 1책 등이 있다. 이후 1945년까지는 정족산 사고본, 태백산 사고본 실록과 오대산 사고본 실록 잔본은 경성제국대학에 수장되어 있었고, 적상산 사고본은 이왕직 장서각에 수장되어 있었다.

4. 光復 後의 『朝鮮實錄』 管理

1945년 8월 광복 후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미군정청이 잠정적으로 통치하였다. 1945년 10월 17일 미군정청은 구 경성제국대학을 접수하여 京城大學을 발족시켰다. 아울러 부속도

21) 朝鮮圖書臺帳. 寫本. (京城: 朝鮮總督府, 大正 5) 8冊. (奎26716).

22) 康熙五年正月十八日實錄齎出奉安後形止案. 寫本. [顯宗 7] 張42裏.

23) 保管轉換引繼圖書目錄. 寫本. [1928-1930] 제1-3책.

小田省吾, “朝鮮史籍解題講義(一),” 『靑丘學叢』 第23號(昭和 11. 2), 153.

24) 奎章閣特別圖書目錄. 寫本. (京城帝國大學圖書館, 19-) (奎26718).

서관의 시설과 장서도 인수하였다. 1946년 8월 22일에 경성대학은 국립서울대학교로 개편되었고, 도서관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정부 수립 후 2년이 되지 않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였고, 곧 중공군도 개입하였다. 긴급 상황에 이르러 정부는 12월에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던 귀중서를 부산으로 소개시켰다. 이때 정족산본, 태백산본, 오대산본 실록,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內閣日曆』, 『日省錄』 등 8,657책을 부산으로 소개시켰으므로 막중한 사책들이 완벽하게 전래될 수 있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안정기에 접어들자, 1954년 6월에 동송동의 서울대학교로 확장되었다. 이후 1975년까지 동송동의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 진장되었다.

1975년 2월 28일 서울대학교는 관악산 기슭의 신림동에 새 교사를 마련할 때 교정 중심부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²⁵⁾ 신림동의 도서관 건물 중 1, 2층은 규장각도서관리실로 배정하고, 2층에는 서고, 1층에는 사무실·전시실·열람실 등을 두었다.²⁶⁾ 규장각도서관리실에는 서울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실록은 모두 진장된 것이다.

한편으로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장의 요청으로 문화재관리국과 서울대학교의 합의 하에 태백산본 실록 848책을 1985년 3월 22일 政府記錄保存所로 보관 전환시켰다.²⁷⁾ 이로써 태백산본은 현재 부산에 있는 國家記錄院 釜山記錄館에 수장되어 있다. 당시 정부기록보존소에서는 실록의 열람은 허락하지 않고 보존만 하였다. 보관 전환시킨 이유는 분산 관리하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태백산본은 이미 영인되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연구에는 지장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부산기록관의 실록서고는 폐쇄회로를 이용하여 감시하며, 초음파탐지시설을 갖추어서 서고문이 개폐될 때는 비상종이 울리게 되어 있었다. 또한 서고 전체는 완전한 방폭 시설, 하론 가스 분출방식의 방화시설, 자동항온, 항습시설이 갖추어져 보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중요한 문적들을 더 잘 보전하기 위하여 규장각도서와 고도서만을 위한 별도의 건물을 대강당 앞에 1985년 10월에 착공하였다. 1989년 12월 완공되었고, 준비기간을 거쳐 1990년 9월 11일에 개관하였고, 1992년 6월 규장각은 서울대학교 설치령의 개정으로 직제상 독립기구로 개편되었다.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 2006년 2월 1일 서울대학교 규장각은 한국문화연구소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으로 통합되었다.

한편 적상산 사고본은 1918년 창덕궁 樂善齋 동남쪽의 이왕직 장서각에 수장되어 있다가, 1937년 창덕궁 迎春軒 북쪽의 장서각 건물로 옮겨졌다. 이 건물은 李王家博物館이었으나, 총독부 박물관이 덕수궁 내에 건립되자 李王家藏書閣으로 개조한 것이다. 광복 후 1945년 11월 8일 미군정청에서 이왕직을 舊王宮事務廳으로 개칭하였다.²⁸⁾ 이로부터 1955년 5월까지 구왕궁사무청에서 이들 장서

25) 『서울대학교二十年史; 1946-1966』 (서울: 서울대학교, 1966) 35, 88-90.

『서울대학교三十年史; 1946-1976』 (서울: 서울대학교, 1976), 422.

26) 『서울대학교圖書館案内』 (서울: 서울대학교, 1985), 8.

27) 文化財. 第18號. (서울: 文化財管理局, 1985), 360-361. 文化財委員會會議錄. 第17次, 20次.

朝鮮王朝實錄移管關係書類; 太白山本. 寫本. (서울: 서울대학교도서관, 1985).

28) 美軍政法令集. (서울: 內務部治安局, 4289) 27. 法令 第26號.

를 관장하였는데, 이 사이에 6·25전쟁으로 적상산 사고본 실록은 행방불명되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수장의 실록 및 중요사책은 부산으로 소개시켰으나, 적상산본은 소개시키지 못하여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근래에는 북한의 國家文書庫²⁹⁾ 또는 평양의 中央歷史博物館³⁰⁾에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실록의 원본은 적상산본이며 6·25 당시에 확보했고 1,763권 900책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5. 1972년 『朝鮮實錄』의 國寶 指定

6·25전쟁 후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안정기에 접어들자, 부산에 소개되었던 실록은 1954년 6월에 동승동의 서울대학교로 환장되었다. 이후 1975년까지 동승동의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 진장되었다. 이 시기 정세가 점차 안정되자 국가적인 문화재의 관리에 대한 초보적인 관심을 경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실록과 같이 중요한 문적을 보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서 실록을 국보로 지정을 위한 기초 조사를 하였는데, 1967년에 강화본, 1972년에 태백산본, 오대산 잔본, 1972년 6월에 낙질본을 조사하였다. 당시 실록조사는 사서과장 白麟³¹⁾이 중심이 되어 조사하였다. 국보로 지정하기 위해 실록에 대한 서지 조사한 내용을 유인본으로 제작한 자료가 4종 전래되고 있다. 즉 『朝鮮王朝實錄(江華本)調査表(1967)』, 『朝鮮王朝實錄(太白山本)調査表(1972)』, 『朝鮮王朝實錄(五臺山本殘部)調査表(1972)』, 『朝鮮王朝實錄(落帙本)調査表(1972.6)』이다. 1967년에 시작하여 1972년에 완료된 사업의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이 조사를 토대로 『朝鮮實錄』은 1973년 12월 31일 국보 제151호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1973년 국보로 지정된 실록의 舊 史庫, 책 수, 국보번호, 당시 수장기관은 <표 1>과 같다.

<표 1> 1973년 국보 지정 실록 책수

舊 史庫	책 수	합계	국보번호	수장기관
정족산본	1,181책	2,077책	제151-1호	서울대 규장각
태백산본	848책		제151-2호	
오대산본	27책		제151-3호	
산엽본	21책		제151-4호	

文化財管理實務便覽. (서울: 文化財管理局, 1984), 261-266.

29) 김정배, “朝鮮王朝實錄赤裳山本の 行方始末,” 『현상과 인식』 v.5 no.4(1981. 겨울), 133-134.

梁一雲, “北韓의 民族古典受容性 研究,” 『北韓』 第129號(1982. 9), 160-180.

30) 京鄉新聞. 1989.1.15. 李朝實錄飜譯本 寄贈.

31) 白麟이 주축이 되어 1965년에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을 간행하였고, 1966년에 古書目錄規則을 편찬하여 유인본으로 제작한 바 있다.

1967년 정족산본을 조사한 내용과 1972년 태백산본, 오대산 잔본, 낙질본을 조사한 내용이 토대가 되어 국보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보로 지정된 정족산 사고본 실록의 권수 합계는 1,717권이다. 책 수에 있어서는 1,181책을 국보로 지정하였으나, 실제 당시의 조사표는 물론 실제 전래본은 1,180책이다. 합산에 착오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67년 조사에는 정족산본 『成宗實錄』은 모두 285권 143책으로 기록되어 있다. 권286-297의 7책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국보지정에도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1985/6년 조사에서는 모두 297권 150책으로 기록되어 있다.³²⁾ 두 시기에 조사된 실록의 권수와 책 수는 <표 2>와 같다.

<표 2> 국보 실록 권수와 책수³³⁾

구분	권수	정족산본 책 수		태백산본 책 수	
		1967년 조사	1985년 조사	1972년 조사	1985/6년 조사
태조	15권	13책	13책	3책	3책
정종	6권	4책	4책	1책	1책
태종	36권	35책	35책	16책	16책
세종	163권	154책	154책	67책	67책
문종	13권	12책	12책	6책	6책
단종	15권	15책	15책	6책	6책
세조	49권	42책	42책	18책	18책
예종	8권	5책	5책	3책	3책
성종	297권	143책	150책³⁴⁾	47책	47책
연산군	63권	46책	46책	17책	17책
중종	105권	102책	102책	53책	53책
인종	2권	2책	2책	2책	2책
명종	34권	34책	34책	21책	21책
선조	221권	125책	125책	116책	116책
선조수정	42권	8책	8책	8책	8책
광해군	187권	40책	40책	64책	64책
인조	50권	50책	50책	50책	50책
효종	22권	22책	22책	22책	22책
현종	23권	23책	23책	23책	23책
현종개수	29권	29책	29책	29책	29책
숙종	65권	73책	73책	73책	73책
경종	15권	7책	7책	7책	7책
경종수정	5권	3책	3책	3책	3책

32) 裨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 (대구: 태일사, 2002), 206.

33) 이들 조사는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 朝鮮王朝實錄(江華本)調査表. 油印本. 1967』, 『서울大學校 附 屬圖書館, 朝鮮王朝實錄(太白山本)調査表. 油印本. 1972』와 『裨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 대구: 태일사, 2002』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34) 정족산본의 1967년 조사에는 『성종실록』 권286-297의 7책이 누락되어 모두 285권 143책으로 기록 되어 있으나, 1985년 조사에서는 모두 297권 150책으로 확인되었다. 착오로 7책이 누락된 것이다.

구분	권수	정족산본 책 수		태백산본 책 수	
		1967년조사	1985년조사	1972년조사	1985/6년조사
영조	127권	83책	83책	83책	83책
정조	56권	56책	56책	56책	56책
순조	36권	36책	36책	36책	36책
헌종	17권	9책	9책	9책	9책
철종	16권	9책	9책	9책	9책
계	1,717권	1,180책 ³⁵⁾	1,187책	848책	848책
총계				1,187책	848책
	2,035책				

반면 태백산 사고본의 통계는 착오 없이 848책이다. 오대산 사고본의 잔본은 실물과 차이가 없이 27책이었으나, 낙질본과 산업본의 책 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1972년 조사된 낙질본의 실록과 1986년 조사와 비교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낙질본과 산업본 실록 책 수³⁶⁾

구분	오대산본		낙질본, 산업본	
	1972년	1986년	1972년	1986년
정종			1책	1책
태종			1책	5책
세종			3책	13책
문종			1책	2책
단종			1책	1책
세조			2책	8책
예종			1책	6책
성종			2책	14책
연산군			2책	5책
중종	20책	20책	2책	14책
명종			3책	8책
선조	7책	7책	1책	15책
광해군			1책	4책
정조				1책
문+성				1책
증+명				1책
계	27책	27책	21책	99책

35) 통계 오류로 1,181책으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는 1,180책이다.

36) 이들 조사는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朝鮮王朝實錄(五臺山本殘部)調査表. 油印本. 1972』, 『서울大 學校 附屬圖書館, 朝鮮王朝實錄(落峽本)調査表. 油印本. 1972.6』과 『裒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 대구: 데일사, 2002』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낙질본과 산업본은 1972년 조사에서는 21책만 확인되었으나, 1986년 조사에서는 99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보지정에서 누락된 낙질본과 산업본은 78책이었다. 이때 정족산본 조사에서 누락된 이유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조선총독부에서 경성제국대학에 장서를 3차에 나누어 이관할 때 분리되어,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서고에는 분산되어 있었던 것이 이유가 아닐까 하는 것이다.

6. 2019년 『朝鮮實錄』의 國寶 追加指定

연합뉴스는 2016년 12월 20일에 『朝鮮實錄』 중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실록이 60여 책이라 보도하였다. 이에 문화재청에서 12월 28일 신승운, 오용섭, 정제규 위원을 파견하여 비지정 실록 현황을 조사하였고, 2017년 2월 9일 문화재청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에 실록 현황 및 재정리 방안을 보고하였다. 9월 13일 규장각에서 문화재청에 실록 누락분에 대해 추가로 국보지정 및 실록계 보물지정을 신청하였다. 10월 12일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에 실록 및 실록계의 정리 및 국보지정을 위한 조사를 논의하고, 향후 지정조사 계획을 보고하였다. 보고 내용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되, 서울대학교는 물론 다른 기관에 수장되어 있는 실록도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문화재청에서는 2018년 1월 24일 지정조사단의 구성 및 조사 방향을 설정하였고, 조사단은 신승운, 오용섭, 김문식, 정제규, 배현숙, 장경희로 구성하였다. 공예사 전공인 장경희는 실록계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실록의 조사는 오용섭, 김문식, 정제규, 배현숙 4명이 1차로 2월 19일부터 조사를 하였다. 이후 2차 4월 13일, 3차 5월 11일, 4차 6월 19일, 5차 7월 3일, 6차 7월 23일, 7차 8월 22일, 8차 10월 5일, 9차 2019년 2월 27일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조사하였다.

2019년 3월 14일 2019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사 내용을 보고하였고, 국보로 지정 예고하되 낙질 및 산업본의 책 수를 구분하고, 2018년도 조사 결과를 회의록에 표로 제시하기로 조건부 가결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완한 후 6월 13일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국보로 지정하기로 가결하였다. 그리고 2019년 6월 26일 관보에 수록됨으로써 국보로 지정되었다.

9차의 조사를 거쳐 국보로 추가 지정된 사정, 권수, 책 수, 상태에 대해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이 96책이었다. 이 가운데 고궁박물관과 중앙박물관의 실록은 근래에 입수한 것이어서 기 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장본은 일제강점기부터 수장되어 있었으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3개 기관의 11책을 제외한 서울대학교 수장의 실록만 보면 85책이 국보에 누락되어 있었다.

<표 4> 국보지정 누락 낙질본 및 산업본 책수

수장처	실록명	원간본	중간본	책수	비고
서울대 (정족산본)	성종	갑인자본 7		7	국보 제151-1호에 누락
	소 계	7		7	
서울대 (낙질본, 산업본)	태종	1	3	4	
	세종	을해자본 3	7	10	
	문종		1	1	
	세조	을해자본 2	4	6	
	예종	을해자본 3	2	5	
	성종	을해자본 6	6	12	
	연산군	갑인자본 1	2	3	
	중종	갑인자본 6	6	12	
	명종	갑인자본 2	3	5	
	선조	실록자본 14		14	
	광해군	실록자본 3		3	
	정조	현종실록자본 1		1	
	문종+성종	을해+갑인자본 1		1	2종 실록 산업의 합철.
	중종+명종		1	1	2종 실록 산업의 합철.
	소 계	43	35	78	
합 계		50	35	85	
국립고궁 박물관	효종	효종실록자본 1		1	
국립중앙 박물관	광해군	정초본 1		1	
한국학 중앙 연구원	성종	실록자본	1	1	
	인조	인조실록자본 1		1	
	효종	효종실록자본 1		1	
	영조	현종실록자본 1		1	
	정조	현종실록자본 1		1	
	순조	현종실록자본 2		2	
	헌종	현종실록자본 1		1	
	철종	현종실록자본 1		1	
소 계	8	1	9		
합 계		60	36	96	

서울대학교에 수장되어 있는 실록 가운데 정족산본 실록에 포함되어 국보로 지정되었어야 할 실록 7책이 누락되어 있고, 같이 수장되어 있는 낙질본과 산업본이 78책 누락되어 합계 85책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9책,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각각 1책씩 실록이 수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합 96책을 실사하였다. 이에 각 수장처 별로 낙질본과 산업본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6.1 서울대학교 수장의 누락본

6.1.1 정족산본 낙질본

이 실록은 <표 5>와 같이 『成宗實錄』 권286, 권287, 권288, 권289, 권290/291, 권292-294, 권295-297의 7책이다. 정족산 구장의 『成宗實錄』은 구 전주 사고본으로 연산군 5년(1499) 갑인자로 인출한 실록이나, 권292-294는 현종 6년(1665) 崔後尙 등이 호남과 영남의 삼도유생 300명을 모아 수교하게 하고, 삼도읍에서 宰郵官 31명을 선발하여 2개월간 적상산 수장의 실록을 필사하여 이듬해(1666) 1월에 강화사고에 봉안한 실록 가운데 하나이다.³⁷⁾ 이들 실록은 1967년 조사 당시에 어떤 착오가 있어 국보지정에서 누락된 것이다.

<표 5> 서울대학교 수장 국보 지정 누락본 실록

請求記號	實錄名	版種	卷次	張次	現張數
규12727-144	성종	갑인자	286	1-14	14
규12727-145	성종	갑인자	287	1-19	19
규12727-146	성종	갑인자	288	1-19	19
규12727-147	성종	갑인자	289	1-21	21
규12727-148	성종	갑인자	290	1-29	29
			291	1-15	15
규12727-149	성종	사본	292	1-32	32
			293	1-25	15
			294	1-12	12
규12727-150	성종	갑인자	295	1-13	13
			296	1-11	11
			297	1-17+4	22

6.1.2 낙질본과 산업본

낙질본과 산업본은 망실된 冊張이 있어 내용을 통관해서 열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 책이다. 이들 낙질과 산업은 어느 시기에 수습해서 장책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형편이다. 아마도 실록의 서지조사를 하고 국보로 지정한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추가로 국보로 지정하기 위한 조사에서 낙질과 산업으로 구분한 기준은 남아있는 책장이 과반이면 낙질, 과반이 미치지 못하면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낙질본 가운데 낙장이 1장도 없는 책이 절반이며, 대개 重刊本에 속한다. 한편 산업본의 절대 다수는 훼손된 전주사고본의 낙장을 합철한

37) 康熙五年三月十八日 赤裳實錄 謄出 奉安 後形止案. 寫本. [顯宗 7(1666) 張11裏.]

것이다. 산업은 중간본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 장이라도 폐기할 수 없다.

낙질본과 산업본은 정족산 사고본과 춘추관 사고본 실록이 중심이다. 궁궐에 수장되어 있던 춘추관 사고본은 전란 및 화재로 인해 상당수가 소실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정족산 사고본도 사고의 수재와 화재로 일부 손상을 입어 완질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훼손된 정족산본은 춘추관 잔본으로 보완하여 완질을 만들었다. 따라서 낙질본은 춘추관 사고본 실록에서 유래된 경우가 많고, 산업본은 정족산 사고본에서 유래된 경우가 많다.

종전에 국보로 지정된 낙질본은 서울대학교에서 1972년 조사한 낙질본을 토대로 1973년 국보로 지정한 것이다. 당시 지정된 낙질은 21책이었으나, 2019년 조사에서는 모두 78책으로 확인되었다. 낙질본 가운데 청구기호가 ‘규25000’으로 ‘25’로 시작된 실록은 이미 국보로 지정된 실록이다. 그러나 ‘규12700’으로 ‘127’로 시작된 실록, ‘규25093’, ‘규25094’와 ‘규26000’은 낙질본이라도 국보지정에서 누락된 것이다. 아마도 1972년 조사할 때는 낙장이 너무 많거나 산업이라고 제외시켰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수장의 실록 가운데 국보 지정에서 누락된 낙질본과 산업본의 책 수는 <표 6>과 같다.

<표 6> 국보 누락 낙질/산업본 실록

낙질본		산업본		합계
태종	4			4
세종	7	세종	3	10
문종	1			1
세조	6	세조		6
예종	5			5
성종	10	성종	2	12
연산군	3			3
중종	9	중종	3	12
명종	4	명종	1	5
선조	14			14
광해군	3			3
정조	1			1
		문종+성종	1	1
		중종+명종	1	1
계	67		11	
합계		78		

6.2 국립고궁박물관 수장의 누락본

오대산 사고본 실록 중 태조-명종의 실록은 교정쇄이고, 이후의 선조-철종의 실록은 정본이다. 오대산 사고본 실록은 1914년 3월에 조선총독부가 동경제국대학 도서관에 기증하는 형식으로 일본

으로 반출되었고,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57책만이 겨우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에 18책이 더 발견됨으로써 실제로는 75책이 전래되고 있었다. 소잔본 중 27책은 1932년 5월에 다시 경성제국대학에 보관 전환되었으므로, 2016년까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관리하였다.

2006년 3월부터 오대산 월정사와 운악산 봉선사가 중심이 된 실록환수위원회가 활동한 결과, 동경대학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 될 것이므로 실록을 반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여 2006년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과 규장각 창립 230주년을 축하하고 동경대와 서울대의 학술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란 명분으로 오대산본 실록 47책을 서울대에 보내왔다. 이로써 동경대학은 약탈했다는 국제적인 오명을 쓰지 않고, 거기다가 감사장까지 받았을 것이다. 이 오대산본 실록 47책은 2007년 2월 국보 제151-3호에 편입되었다. 국보 오대산본 실록 74책 모두 2016년 7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아직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오대산본 실록 1책이 고궁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었다. 이 책에도 [東京帝國大學圖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고궁박물관에서 2018년 『효종실록』 1책을 구입하였으나,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서적상이 일본의 경매에서 낙찰받은 책을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표 7>과 같이 오대산본 실록은 모두 75책이 전래되고 있고, 현재는 고궁박물관에 수장되어 있다.

<표 7> 오대산본 실록 수장처

국보 지정년도	실록명	책수	소계	수장처	비고
1973	증종	20	27	고궁박물관	2016.7. 서울대에서 이관됨
	선조	7			
2007	성종	9	47	고궁박물관	2016.7. 서울대에서 이관됨
	증종	30			
	선조	8			
2019	효종	1	1	고궁박물관	2018.4. 구입함
		합계	75		

6.3 국립중앙박물관 수장의 누락본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광해군일기』의 낙질본 1책이 수장되어 있다. 2005년 공개로 구입한 실록인데, 그 내역은 <표 8>과 같다. 이 잔본 실록에는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고, 상태도 양호하다. 『광해군일기』의 권55-58은 정족산본과 태백산본에서 낙질된 것은 아니다. 춘추관에 수장되었던 실록은 순조연간 춘추관 서고의 화재로 소실되고 일부

남은 낙질은 정족산본에 충당시키고, 그 나머지는 산업이 되었다. 해당 권차의 낙질은 서울대학교 낙질본이나 산업본에도 없다. 오대산본에는 동경대학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광해군일기』가 수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고는 적상산 사고밖에 없다. 또한 인장을 통해서도 적상산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후일 평양의 적상산본을 확인하면 분명해질 것이다.

<표 8> 국립중앙박물관 수장 실록

구입년도	청구기호	판종	실록명	권차	비고
2005	구4760	寫本	光海君日記	55	正草, [적상산본]
				56	
				57	
				58	

6.4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장의 누락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장의 실록 낙질은 2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구 奉謨堂本으로 추정되는 6책이고, 다른 하나는 赤裳山 史庫本의 잔본으로 추정되는 3책이다. 이는 <표 9>에 보이는 바와 같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장의 실록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국가 도서를 접수한 후 대다수는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이관하였으나, 이왕직 도서와 적상산 사고본은 이왕직 장서각으로 이관하였었다. 이들 서적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오늘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가 된 것이다.

<표 9>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장 실록

청구기호	판종	실록명	권차	張次	張數	前수장처 추정
K2-60	중간본	성종	3	3-24	22	적상산사고
			4	17-30	14	
			5	1-25	25	
K2-84	인조실록자	인조	17	14-18, 21-3, 27, 28, 30-55	36	적상산사고
K2-106	효종실록자	효종	9	23-75	53	적상산사고
K2-64	현종실록자	순조	부록	1-25	25	봉모당
K2-63	현종실록자	순조	부록속편	1	1	봉모당
K2-82	현종실록자	영조	부록	1-42	42	봉모당
K2-93	현종실록자	정조	부록	1-59	59	봉모당
K2-102	현종실록자	철종	부록	1-16	16	봉모당
K2-104	현종실록자	헌종	부록	1-16	16	봉모당

적상산 사고본 잔본은 광복 후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에서 관리하다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한 서적 가운데 포함된 실록의 잔본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장의 적상산 잔본으로 추정되는 3책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卷頭는 모두 탈락되어 있다. 이에 비해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구입한 적상산본 『광해군일기』의 書眉에는 [李王家圖書之章], 紙脚에 가까운 오른쪽 변란 밖에는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장의 실록 권두가 망실되어 있으므로 북한에 있는 적상산본을 조사해야 확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봉모당본은 모두 실록의 본문이 아니고 부록이다. 실록의 印刊이 끝나면 역대의 국왕들은 실록을 열람하고자 하였지만, 국왕은 열람할 수 없도록 정한 전통을 지키기 위해 춘추관의 사관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후기에는 附錄만 인출해 국왕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부록들은 어람을 거친 후 창덕궁 후원의 봉모당에 봉안해 두었던 것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국보에 누락된 실록은 앞의 <표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모두 96책이다. 지정에서 누락된 실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85책(정족산 낙질본 7책, 낙질본과 산업본 78책), 국립고궁박물관 1책, 국립중앙박물관 1책, 한국학중앙연구원 9책이다. 이들 실록을 국보로 지정한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수장의 갑인자본 『성종실록』 7책은 전주사고에 수장되었다가, 임진왜란 이후 중간본을 제작한 후 강화도에 봉안했던 실록이다. 착오로 국보 제151-1호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성종실록』 7책이 더해져야 정족산본은 완질이 되기 때문에 국보에 편입되어야 한다.

또한 낙질본과 산업본도 실록의 잔질이므로 중시되어야 한다. 실록은 열람을 위한 전적이 아니었고, 만대에 전승해야 할 전적이었다. 그러므로 조선 전기에는 여건에 따라 실록은 2부 또는 4부를 제작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5부를 인출하였다. 전래되고 있는 조선실록은 모두 4부 또는 5부 한정판이었다. 그러므로 실록은 殘鱗片甲일지라도 매우 귀중하다 하겠다.

낙질과 산업으로 구분한 기준은 남아있는 책장이 과반이면 낙질, 과반이 미치지 못하면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낙질본 가운데 낙장이 1장도 없는 책이 절반이며, 대개 중간본에 속한다. 한편 산업본의 절대 다수는 훼손된 전주 사고본의 낙장을 합철한 것이다. 낙질본과 산업본에는 전주사고본의 잔편도 일부 있어서, 임진왜란 이후의 중간본과 대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미지정의 산업본 실록도 폐기하지 말고 모두 국보에 편입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지금 평양에 수장되어 있는 적상산본 실록은 완질일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수장되어 있는 적상산본 낙질의 경우 모두 권두가 망실된 상태이다. 평양의 적상산본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산업본도 잘 보존해서 통일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재의 등급이 다르면 관리가 달라질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이다. 6·25전쟁 때 국보는 부산으로 소개시켰지만, 보물까지는 다 소개시키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때보다 국보의 수는 더욱 증가된 상태이다.

② 국립고궁박물관에서 2017년 구입한 『효종실록』 권20은 오대산본의 잔본이므로, 국보에 편입시

킬 필요가 있다.

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5년 공개로 구입한 『광해군일기』의 잔본 권55/58은 [李王家圖書之章]과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이 날인되어 있어 적상산본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장의 성종, 인조, 효종의 실록 잔본 3책은 적상산본의 잔본으로 보인다. 비록 권두가 손상되었지만, 언젠가는 적상산본과 합쳐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보로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㉕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장의 순조-철종까지의 실록부록 6책은 奉謨堂에 봉안되어 있던 御覽本이다. 어람본이므로 표지를 藍大緞으로 장황한 호화장본이다. 봉모당은 정조가 규장각을 설립하게 된 핵심적인 규장각의 장서처로 어제, 어필과 어람본을 봉안한 특별 서고였다. 조선 역대의 국왕은 실록의 간행이 완료되면, 실록을 열람을 요구하였다. 역대의 사관들은 국왕의 실록 열람을 끝내 거부하였다. 그렇지만 그 사료인 사초를 열람하게 하여 발생한 대표적인 사화가 무오사화이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성종과 인종의 실록에만 행장, 시책문, 애책문, 지문 등을 수록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지만, 『光海君日記』를 제외한 『宣祖實錄』 이후의 실록에는 반드시 부록이 첨가되어 있다. 열람하고자 하는 왕권과 열람을 막아야 하는 신권의 대립을 절충한 접점이 부록을 간행해 어람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봉모당본은 실록 어람본의 실재를 증명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2019년 국보에 추가시키면서 국보의 부가번호를 조정하였다. 사고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낙질과 산업을 마지막 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기존에 국보로 지정된 실록과 2019년에 지정된 실록을 원래의 사고로 구분하면, 정족산본 1,187책·태백산본 848책·오대산본 75책·적상산본 4책·봉모당본 6책·낙질과 산업본 99책으로 도합 2,219책이다. 이를 현 수장처 별로 국보 지정년도, 原藏 사고, 책 수와 국보번호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고, 각 사고별 왕별 실록 책 수는 <표 11>과 같다.

<표 10> 국보 지정 실록

(2019년 현재)

수장처	지정년	원사고	책수	국보번호
서울대학교	1972	정족산	1,180	제151-1호
	2019		7	
	1972	산업본	21	제151-6호
	2019	낙질, 산업	(67+11)78	
국가기록원	1972	태백산	848	제151-2호
고궁박물관	1972	오대산	27	제151-호3
	2007		47	
	2019		1	
중앙박물관	2019	적상산	1	제151-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적상산	3	제151-4호
	2019	봉모당	6	제151-5호
			합계	2,219

<표 11> 국보 실록 책수

(2019년 현재)

구분	권수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	봉모당	낙질/산엽	
				1973	2007	2019			1973	2019
조사년도		1973	1973	1973	2007	2019	2019	2019	1973	2019
태조	15	13	3							
정종	6	4	1						1	
태종	36	35	16						1	4
세종	163	154	67						3	10
문종	13	12	6						1	1
단종	15	15	6						1	
세조	49	42	18						2	6
예종	8	5	3						1	5
성종	297	150	47		9		1		2	12
연산군	63	46	17						2	3
중종	105	102	53	20	30				2	12
인종	2	2	2							
명종	34	34	21						3	5
선조	221	125	116	7	8				1	14
선조수정	42	8	8							
광해군	187	40	64				1		1	3
인조	50	50	50				1			
효종	22	22	22			1	1			
현종	23	23	23							
현종개수	29	29	29							
숙종	65	73	73							
경종	15	7	7							
경종수정	5	3	3							
영조	127	83	83					1		
정조	56	56	5					1		1
순조	36	36	36					2		
헌종	17	9	9					1		
철종	16	9	9					1		
문+성										1
증+명										1
계	1,717	1,187	848	27	47	1	4	6	21	78
총계		1,187	848	75			4	6	99	
	2,219									

7. 『朝鮮實錄』의 修補

임진왜란 후 외방에 사고를 설치한 초기에는 3년1차 포쇄하고 점검하여 관리에 그다지 문제가 없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이르러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말미암아 5년에 한 번 포쇄하다가 10년에 한 번 포쇄하기에 이르렀다. 당시는 심산유곡에 외따로 있는 사고가 폭우로 침습되어도 즉각 포쇄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었다. 반드시 중앙에서 파견된 사관만이 포쇄할 수 있었다. 폭우로 사각에 이상이 생겼다는 보고를 받은 당해 사고의 實錄守護摠攝이 지방관청에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에서 중앙에 보고하였다. 보고를 접한 춘추관에서 파견할 사관을 선발해 사고에 보내면 침습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여서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일단 침습된 冊紙는 며칠 포쇄했다 해도, 장마철이 되면 곰팡이는 증대되어 책지를 손상시키게 마련이다. 침습된 실록이 몇 년 후 또다시 침습되면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지만, 해결방안이 없었다. 근래에는 이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연구한 바, 그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7.1 染蠟된 實錄의 修理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실록의 망실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어 복본 제작을 위해 중간하였다. 중간한 후 심산유곡에 사각을 건립하고 봉안하였다. 폭우가 있으면 간혹 사각의 지붕에 손상이 생기게 되었고, 사관을 파견해 보수하였지만 시간이 지체되기 일쑤였다. 시간이 지체되면 실록이 침습되어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자주 거풍하기 쉽지 않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손상된 실록은 열화가 심화되었다.

강화 摩尼山에 봉안될 때까지 여러 지역으로 소개되는 과정에 구 전주 사고본은 많은 손상을 입은 실록이다. 정기적으로 포쇄하였지만 조선말이 되면 점차 포쇄간격이 길어져 손상은 가중되었다. 또 丙子胡亂과 李适의 난으로도 손상을 입었다. 이에 정족산 사고본을 대상으로 현종 5년(1664)에 改絲·改粧·改櫃하였으며, 현종 6년(1665)에 落卷과 落張을 고출하였고, 현종 7년(1666)에 낙권부분을 적상산에서 騰出해와 보완했으며, 숙종 25년(1699)에는 舊 全州 史庫本만 染蠟하고 修補하였다.³⁸⁾

당시 일련의 수보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실록의 보존대책을 수립한 것이 硯랍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차례 修復하고 修補하다가 舊 全州 史庫本은 특별 관리하기 위해 硯랍한 것이다. 종이에 硯랍을 하면 강인하면서 투명해지고, 아울러 방습의 효과가 있다. 숙종 25년(1699) 3월 24일에는 奉教 朴弼明이 실록을 硯랍하는 일로 江華府에 나가,³⁹⁾ 硯랍과 수보를 한 후 형지안을 작성하였다.⁴⁰⁾ 숙종 25년(1699)의 형지안의 서명은 硯랍 및 수보 형지안이지만, 본문 내용에는 硯랍에 대한

38) 裴賢淑, “朝鮮時代 實錄의 染蠟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52집(2012. 9), 71-100.

39) 『承政院日記』 肅宗 25年 3月24日(癸巳) 원본384책/탈초본20책.

언급이 없다. 다만 ‘落卷新謄’(顯宗年間 修補本), ‘樣小’(春秋館殘本), ‘赤裳亦落’(文宗 권11), ‘疊書’(複本, 春秋館殘本) 등이 주기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음 포쇄 때 작성된 숙종 27년(1701) 형지안에는 蠟騰, 蠟印, 新謄 등의 주기가 있어서 앞서 염랍한 부분을 알 수 있다.⁴¹⁾

이와 같이 실록에 심각한 훼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이미 조선 후기부터였다. 『承政院日記』 영조 38년(1762) 11월 기사에 同春秋 洪樂性이 “臣이 이번에 奉命하여 실록을 考閱한 바, 蠟騰하는 것은 장기간 훼손시키지 않고자 하는 방책이었지만 도리어 해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실록을 펼치면 왕왕 몇 글자 탈락된 곳이 있고, 혹은 全板이 闇黑한 곳도 있어 자획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변통할 방법이 없지만 신이 살펴본 바는 실로 걱정이 되어 감히 진달합니다”라고 하였다. 待敎 洪檢道 “同春秋가 이미 상주한 바가 있는데, 이는 史事와 관계가 있으므로 황공하옵게도 감히 진달합니다. 이번 실록을 고출할 때에 본 것 중에서도 蠟騰한 곳에 간혹 3, 4자 脫落하거나 漫漶한 곳이 있습니다. 막중한 실록이므로 이는 참으로 걱정될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으니 차후에는 밀랍을 제거하는 일을 정식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⁴²⁾ 이를 통해 보면 이미 영조연간에도 염랍한 곳에 훼손이 있었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찌 되었건 영구보존을 목적으로 염랍하였으나, 의도와는 달리 실록의 열화를 가속화시키게 된 것이다. 필자가 직접 살펴본바 적당하게 염랍된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과도하게 염랍되거나, 또는 장기간 습기에 노출된 부분에 열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근래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대책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밀랍이 종이의 열화에 미치는 원인과 영향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를 진행시킨 바 있다. 그 연구는 손상원인 규명, 밀랍지의 열화 특성, 밀랍본 시제품 제작 등이다.⁴³⁾

종합하면 정족산본은 총 1,187책 가운데 475책이 밀랍되어 있는데, 밀랍본이 染蠟되지 않은 실록보다 더 심각하게 열화되었으며, 특히 밀랍 도포량이 많을수록 밀랍이 경화됨에 따라 변색, 갈라짐, 꺾임, 곰팡이 피해 등 손상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40) 春秋館, 康熙三十八年三月日實錄染蠟及曝曬修補時形止案. 寫本. [肅宗 25(1699)].

41) 康熙四十年辛巳十月 日實錄閣修改及曝曬時形止案. 寫本. [肅宗 27(1701)].

42) 『承政院日記』 英祖 38年 11月17日(乙亥) 원본1212책/탈초본68책.

43) 조병목, 최태호, 김형진, 엄태진, “세종실록 원지의 섬유 분석 및 초기방법 규명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펄프. 종이공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6), 337-342.

엄태진, 김강재, 조병목, “세종실록에 처리된 밀랍의 성상변화,” 『한국펄프. 종이공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7), 1-6.

조성은, 김용태, 정소영, 조병목, 이종규, “종이변색균류의 배양적 특성 및 화학적 방법에 의한 변색 제거,” 『한국펄프. 종이공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9), 295-303.

강영석, 서진호, “Chamber System을 이용한 조선왕조실록의 미세유출가스 분석,” 『보존과학연구』 31(2010), 9-16.

최경화, 정혜영, 강영석, 조경혜, “건식 인공열화 시 밀랍본 시제품의 제분부위별 광학적 특성변화 비교분석,” 『펄프·종이기술』 제43권 제3호(2011. 9), 99.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기술 연구』 1, 2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종이는 일단 열화되면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열화된 상태로 현상유지가 최우선이라 할 수 있다. 훼손이 심각하지 않으면 습식세척한 후 원상을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훼손된 밀랍본은 심각한 수준인 경우도 있어 습식 세척할 수 없는 실록도 상당수이다. 이에 규장각에서는 더 이상의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으로 건식세척을 한 후 메움 작업으로 복구하고 있다. 그 예가 <그림 1>과 <그림 2>이다.



<그림 1> 수리전. 규장각 제공.



<그림 2> 수리후. 규장각 제공.

밀랍본을 복원하는 과정은 至難하다. 훼손된 밀랍본을 복원하는데, 시간과 인력은 물론 비용도 상당히 필요하므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8. 結 言

『朝鮮實錄』은 위계상 3차 자료에 해당하는데, 임시관청인 실록청에서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해 비장할 목적으로, 당해 국왕의 사후에 편년체로 편찬해, 대개 4-5부를 제작해 사고에 비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록은 만일의 재난에 대비해 복본을 전국 각지의 안전한 곳에 비장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래될 수 있었다.

『朝鮮實錄』에는 역사기술에 있어 매우 진실성과 신빙성이 높은 역사기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선만큼 군주조차 실록과 사초를 열람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실록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높게 인정하는 것이다. 『朝鮮實錄』은 최대 5부 간행하면서도 활자로 간행했으므로, 우리나라 인쇄문화에 대한 인식, 전통과 높은 문화수준을 보여주고 활자개량에 힘써 온 전통이 반영되어 있다. 실록을 자손만대에 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거점 지역에 사고를 설치하고 분산 수장하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전승에 만전을 기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이런 중요성을 인식해 1973년 12월 31일 국보 제151호로 지정하였으며,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시켰다. 이후 2007년 일본에서 환수한 오대산본 실록을 국보에 추가로 지정하였다. 2019년에는 국내에 전존되고 있는 모든 실록을 국보에 편입시켰다. 따라서 정족산본 1,187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75책, 적상산본 4책, 봉모당본 6책, 낙질과 산업본 99책, 도합 2,219책이 국보로 지정되었다.

국내에 전존하고 있는 실록에 대해서는 책수·수장처·상태 등이 확인되었지만, 북한에 전래되고 있는 실록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수장되어 있는 적상산본 3책과 국립중앙박물관 수장의 적상산본 1책은 적상산본의 잔본으로 추정된다. 동일 권차는 정족산본과 태백산본 실록에도 전존되고 있다. 오대산본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실록이 어떤 연유로 적상산본에서 나오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 있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도 한국과 프랑스 공동으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킨 바 있다. 같은 맥락으로 평양의 적상산본도 전수를 조사해서 세계기록유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록의 전모를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손만대에 전승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석, 서진호. “Chamber System을 이용한 조선왕조실록의 미세유출가스 분석.” 『보존과학연구』 31(2010). 9-16.
- 김정배. “朝鮮王朝實錄赤裳山本の 行方始末.” 『현상과 인식』 v.5 no.4(1981. 겨울). 133-134.
- 裴賢淑. “朝鮮時代 實錄의 染蠟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52집(2012. 9). 71-100.
- 裴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 대구: 태일사, 2002.
- 裴賢淑. “朝鮮朝 史庫의 藏書管理.” 『奎章閣』 v.2(1978. 12). 11-56.
- 『서울大學校三十年史; 1946-1976』. 서울: 서울대학교, 1976.
- 『서울大學校二十年史; 1946-1966』. 서울: 서울대학교, 1966.
- 梁一雲. “北韓의 民族古典受容性 研究.” 『北韓』 第129號(1982. 9). 160-180.
- 엄태진, 김강재, 조병목. “세종실록에 처리된 밀랍의 성분변화.”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07). 1-6.
- 조병목, 최태호, 김형진, 엄태진. “세종실록 원지의 섬유 분석 및 초지방법 규명을 위한 기초 연구.”

-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2006). 337-342.
- 『조선왕조실록 밀랍본 복원기술 연구 1, 2』.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 朝鮮王朝實錄(落帙本)調査表. 油印本. (서울대학교 附屬圖書館, 1972.6)
- 朝鮮王朝實錄(五臺山本殘部)調査表. 油印本. (서울대학교 附屬圖書館, 1972)
- 朝鮮王朝實錄(太白山本)調査表. 油印本. (서울대학교 附屬圖書館, 1972)
- 조성은, 김용태, 정소영, 조병목, 이종규. “종이변색균류의 배양적 특성 및 화학적 방법에 의한 변색 제거.”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2009). 295-303.
- 최경화, 정혜영, 강영석, 조정혜. “건식 인공열화 시 밀랍본 시제품의 제분부위별 광학적 특성변화 비교분석.” 『펄프·종이기술』 제43권 제3호(2011. 9). 98-105.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Byung-mook, Choi, Tae-ho, Kim, Hyung-jin, & Um, Tae-jin. 2006. “Basic Study on Sejong Silrok Raw Paper Fiber Analysys and Paper Manufacturing Method Clarifiation.” *Korea Pulp and Paper Engineering Society Fall Academic Conference Paper*, 337-342.
- Cho, Seong-eun, Kim, Yong-tae, Jung, So-young, Cho, Byung-mook, & Lee, Jong-gyu. 2009. “Cultivation Nature of Paper Discoloration Fungus and Discoloration Removal Using Chemical Method.” *Korea Pulp and Paper Engineering Sociey Spring Academic Conference Paper*, 295-303.
- Choi, Kyoung-Hwa, Jeong, Hye Yong, Kang, Yeong Seok, & Cho, Jung Hye. 2011.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ptical Aging Patterns in Different Partitions of the Beeswax-Treated Volume during Dry Heating Aging at 105°C.” *Journal of Korea TAPPI*, 43(3): 98-115.
- Kang, Yeong-seok, & Seo, Jin-ho. 2010. “Fine Leaked Gas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with the Use of Chamber System.” *Conservation Science Research*, 31: 9-16.
- Kim, Jeong-bae. 1981. “Whereabouts of Jeoksang Mt. Version of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Phenomenon and Awareness*, 5(4): 133-134.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13. *Research on Restoration Technology for Beewax-treated Annals of Joseon Dynasty 1,2*. Seoul: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Pae, Hyon-suk. 1978. “Management of Deposit Libraries of Choson Dynasty.” *Kyujanggak*,

2: 11-56.

- Pae, Hyon-suk. 2002. *Introduction to Research on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Daegu: Taeilsa.
- Pae, Hyon-suk. 2012. "A Bibliographic Study on the Paper of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Coated with Purified Beeswax."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2: 71-100.
- Seoul National University. 1966. *Histo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46-1966*.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2.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Partly Missing Version)*. Memeograph Vers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nex Library.
-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2.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Remaining Parts of Ohdae Mt. Version)*. Memeograph Vers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nex Library.
-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2.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Remaining Parts of Taebaek Mt. Version)*. Memeograph Versio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nex Library.
- Seoul National University. 1976. *Histor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46-1976*.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Um, Tae-jin, Kim, Gang-jae, & Cho, Byung-mook. 2007. "Change in Condition of Beewax Worked on Sejong Silrok." *Korea Pulp and Paper Engineering Society Spring Academic Conference Paper*, 1-6.
- Yang, Il-woon. 1982. "Research on North Korea's Receptivity of National Classics." *North Korea*, 129: 160-180.

